목포시 102개 사업 8267억원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전년 6711억원보다 23% 늘어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
서부정비창 구축 항만 개발 탄력

목포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 현안사업 8267억원을 반영, 전년보다 23% 늘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은 102건, 8267억원 상당이다. 이는 전년 확보한 6711억원보다 23%(1556억원) 늘어난 규모다.

목포시가 현안사업으로 꼽은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목포양동교회 화장실 신축 등의 사업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심사과정에서 최종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분야의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건설 및 전철화, 국도 77호선(압해~화원)연결도로 개설 등이 있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은 실시설계비 2억8000만원(코레일 예산 포함)이 반영됐다. 이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목포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목포역 현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목포시 측은 설명했다.

항만개발 사업 분야에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개설, 내항 여객부두 건설, 북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확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 관련으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전기추진 차도선·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새싹기업 도약지원사업,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개발 등이 포함됐다.

지역개발 사업에는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 반영됐다.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달리도~외달도 해상보행 연도교 개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억원 등이 들어갔다. 균특 지방전환사업으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남교동 공용주차타워 조성, 요트마리나 시설 정비 등이 편성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지속 방문해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 반영됐다"며 "내년에도 국고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소아과 개설,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상

상반기 최우수·우수상 2관왕
행안부 장관상 이어 4번째 수상

진도군이 추진하는 '소아과 최초 개설'이 전남도에서 주최한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진도군은 올해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진도대파,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다)과 우수상(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진도군 정보를 내 손안에)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진도대파,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다'는 2023년 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진도군은 이번 대회에서 '진도군 최초 소아과 개설! 보배섬 아이사랑 건강 프로젝트(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사례를 통해 우수상(2위)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A급 의료취약지역인 진도군은 아동과 청소년 진료를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군은 지난해 의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올해 6월 소아청소년과를 처음 개설해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았다.

또 진도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유치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분야에서 올해로 벌써 4번째 수상으로 진도군의 자랑거리가 됐다"며 "진도군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했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진도군은 올해 6월 전남도 최초로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했다. 보건소 의사가 아이를 진료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완도군, 농수산식품 수출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남도 우수 시군 경진대회
전복·김·미역 등 5300t 수출

완도군이 전남도가 주최하는 '제1회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경진대회'는 수출 제품 개발·해외시장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남도농수식품온라인수출협회, 농수산식품수출기업 등이 참여했다.

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농수산 수출 실적과 수출액 증가율, 해외시장 개척 노력 등의 평가로 진행됐다.

6개 시군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완도군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군은 국내 소비 시장의 한계를 파악하고 2016년부터 해외에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판촉전과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지난해 미국, 오스트리아, 미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 5300t(수출액 844억원)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품목은 전복, 김, 미역 등 해조류와 해초 국수, 전복 차우더, 전복 볶음밥, 광어 죽 등이다.

군은 '2024 완도군 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을 모집 중이며,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판촉 행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전남도가 주최한 제1회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와 월드옥타 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연계한 판촉전, 수출상담회도 꾸준히 추진해 어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유달산 노적봉서 새해맞이 '시민의 종' 타종

2023년 타종식 행사 모습.

목포시가 오는 31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타종식 행사를 갖는다.

노적봉 새천년 시민의 종각에서 열리는 타종식은 갑진년 새해 0시에 장엄하고 우렁찬 종소리로 2024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이어 지역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들,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목포시의 큰 도약을 염원하는 33번의 타종이 이어진다.

식전공연으로 목포시립합창단과 타악그룹 얼쑤의 신명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타종 후에는 갑진년 새해 첫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드론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 소원지 쓰기와 청룡 포토존이 운영된다.

이날 오후 10시부터는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 주관으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떡국과 음료를 나누는 행사도 마련되고, 타종식 행사장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방문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 한해 수고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드릴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보훈가족 유족수당 3만원 늘려 월 8만원씩 지급

해남군이 새해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을 3만원 인상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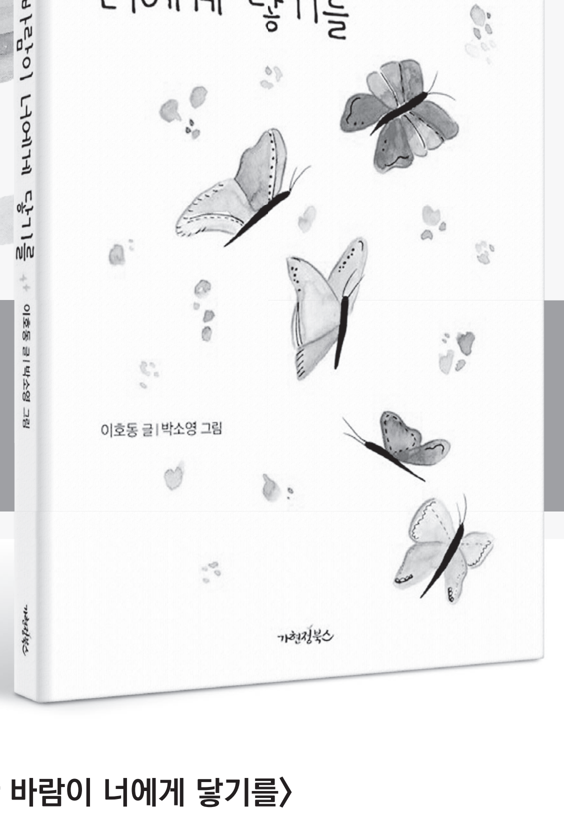
이는 본인수당과 동등한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유족 최초 1회 승계 조항도 폐지해 유족수당의 범위도 확대했다.

해남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본인은 8만원, 유족의 경우 65세 이상 중 최초 1회 승계에 한해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했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유족에게만 지급되었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0여년만에 보훈회관을 신축해 10개 보훈단체가 한자리에 자리잡는 화합과 예우의 공간도 마련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